끝내 고향에 가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 잇단 좌절 법학도 설날 아침 자살

모텔 투숙 흉기로 자해 후 투신

공무원 시험에 연거푸 떨어진 법학도가 귀향을 포기하고 설날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8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J모텔 앞 길에서 최모(24)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전날 밤 9시께 이 모텔에 투숙했으며 왼쪽 손목에는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 2개가 나 있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전남 M대 법학과 2학년인 최씨는 지난 2004년 군대를 제대한 뒤 학교를 휴학하고 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최씨는 3년 동안 집에서 독서실과 학원만 오가며 공부를 했으며 7급과 9급, 계열을 가리지 않고 각종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모두 낙방하자 이를 비관했으며, 복학 여부로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남5녀 중 막내인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가족들이 명절을 쇠러 고향인 나주로 가자고 했지만, "이발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중에 가겠다"며 혼자 광주에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공무원 시험에 계속 합격하지 못하자 심한 고민을 했다"면서 "원래 활발하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시험을 준비하면서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잇따른 시험 실패를 비관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를 한 뒤 이 모텔 5층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설 연휴 사고 '얼룩'

전남, 교통사고·화재 등 잇따라

설 연휴는 예년에 비해 짧았지만 화재와 정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10분께 보성군 복내면 반석리 서리실 마을 입구 도로에서 '06마 08××'호 오피러스 승용차(운전자 김모·58)가 앞서 가던 '광주11다 64××'호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최모·45)를 들이받아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이날 새벽 1시50분께 완도군 금당면 신흥리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친척 집에 온 한모(17·부산 B고 1년)양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지난 17일 오후 3시10분께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대곡선착장 부근 해상에서는 고향을 찾아 스킨스쿠버를 하던 곽모(45·서울시 송파구)씨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다.

또 이날 오후 2시30분께에는 해남군 화산·송지·현산면 일대 유선전화 회선 4천여 개가 부분 불통돼 1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KT 전남본부는 해남지점의 디지털 회선 분배장치에 오류가 생겨 통신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3일간의 짧은 설 연휴였지만, 교통량 분산으로 귀경길은 큰 정체 없이 예년보다 30분~1시간 빨랐다. 사진은 19일 오후 4시께, 하늘에서 본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나들목 인근.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헬기조종=광주소방 항공대 박창순 대장

귀경길 정체 크게 줄었다

작년보다 1시간 빨라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고 새 도로가 개통되면서 귀경길 차량 정체가 크게 줄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현재(영업소 기준) 고속도로 운행시간은 ▲서울~광주 6시간 30분 ▲서울~목포 7시간이 소요돼 지난해 설 명절에 비해 30분~1시간 빨라졌다.

도로공사는 지난 16일~18일 동안 호남 관내 영업소 42곳을 통해 75만여 대의 차량이 들어왔으며, 61만대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2~3%(3만대·입출구 기준)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휴 기간이 짧아 고향을 찾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고, 지난해 12월 말 개통한 장성~담양 간 고속국도 등 새로 뚫린 길이 차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하늘과 바닷길은 19일 짙은 안개와 풍랑으로 항공기 10편(왕복)과 70여 편의 여객선이 운항 지연 등 오전 한때까지 차질을 빚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완도 김 양식장 훼손 도주 해경,러시아 화물선 추적

1억5천만원 피해

러시아 화물선이 완도 해상에서 양식 김발 수백여 책(柵 : 1책=80×1.8m)을 훼손하고 달아나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화물선 'Sea Lord'호(3천t급)가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완도군 청산도와 대모도 사이에 시설된 김 양식장 200여 책(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파손하고 달아났다. 이 화물선은 고철을 싣고 러시아에서 인천항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김발을 훼손한 뒤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해 현재 인천항에 입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18일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천항에 수사대를 급파해 선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의 선장을 체포하는 대로 완도로 압송, 정확한 사고 및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우리 조직에 가입하라"

조폭, 중학생 감금폭행

광양경찰은 19일 중학생을 감금·폭행한 광양 '백호파' 조직원 김모(20)·우모(19)씨 등 2명에게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광양시 D중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K(15)군을 자신들의 숙소로 데려가 "조직에 가입하라"며 이틀간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또 K군이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車 빼려 6m 몰아도 음주운전 해당

대법, 상고 기각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44)씨는 차를 빼 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박씨는 후다닥 나가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를 6m 가량 운전해 음식점 옆집 앞으로 옮겨 왔다. 그러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6m를 운전했다고 하나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운전을 마친 이후 적발된 것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인사는 단체장 고유권한 광주고법 판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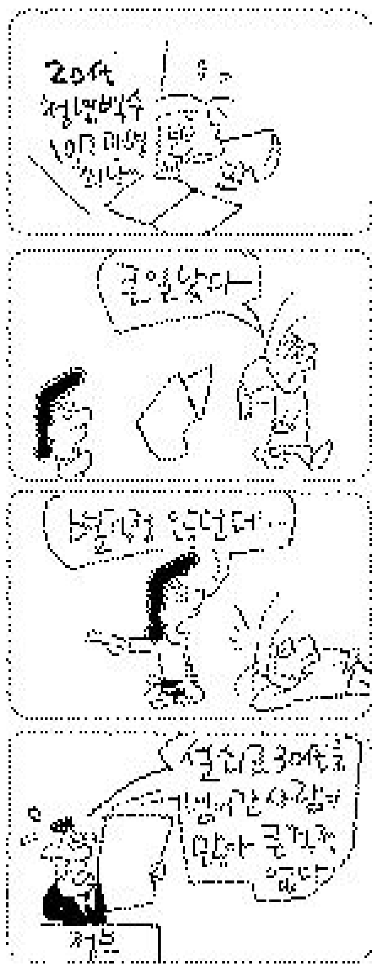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9일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이라며 신안군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발령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안군청 행정 6급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말 '계급정년을 1년 남기고 공로연수를 신청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문책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대기발령을 내림으로써 급여 등 재산적 이익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057〉 김종두



영광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영광 원자력 1호기가 지난 18일 오후 6시41분께 발전기 코일 손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 측은 "방사능 노출은 없었으며, 향후 1개월 간 정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임금 달라" 고공 시위 20대 구속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광주 B아파트 건설현장의 높이 50m의 타워크레인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세 차례나 시위를 벌인 추모(2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추씨는 크레인 운전석에 있던 헬멧 등을 아래로 던지고, 크레인 기계 끝까지 걸어가 연결된 줄을 붙잡고 내려오다 힘이 빠지는 바람에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밀린 임금 500여 만원을 갚았는데도, 추씨가 크레인 위를 걸어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 /이승배기자 lsb54@